

월스트리트파인더 Ep.201

슈퍼 엘니뇨가 온다

- 세계 주요 기후관측 기관 “역대급 엘니뇨” 가능성 경고
- 공급 충격을 가격과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 (Weekly Preview) 미국 재정 · 물가가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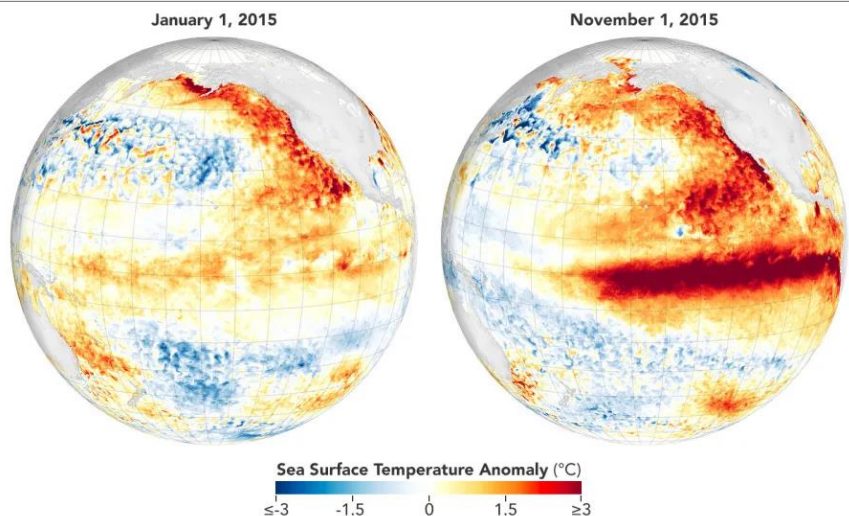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2026년 여름, 슈퍼 엘니뇨와 북반구 열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글로벌 기후 시스템은 단순한 이상기후를 넘어 구조적 공급 충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폭염이나 가뭄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 감소와 물류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충격으로, 식량과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기후 리스크는 ‘날씨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공급 측 트리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충격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서 끝나지 않고, 비료·사료·에너지·운송비로 확산된 뒤 가공 식품과 축산물, 나아가 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이 구조를 가진다. 특히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이나 하천 운송 병목이 겹칠 경우 가격 상승은 실제 생산 감소보다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훼손하고 금리 인하 기대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자산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 자체가 아니라 기후 충격이 식량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전가하거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다. 단순히 엘니뇨 수혜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재가속과 금리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 적응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찾는 데 있다.

그림 1. 엘니뇨 판단의 근거가 되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



자료: NASA

Issue Dive

엘니뇨란 무엇인가?

엘니뇨 현상은 1600년대에 남아메리카 연안에서 조업하던 페루 어부들은 해류의 변화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현상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그들은 이 현상을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를 뜻하는 “엘니뇨 데 나비다드(El Niño de navidad)”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보통 크리스마스 무렵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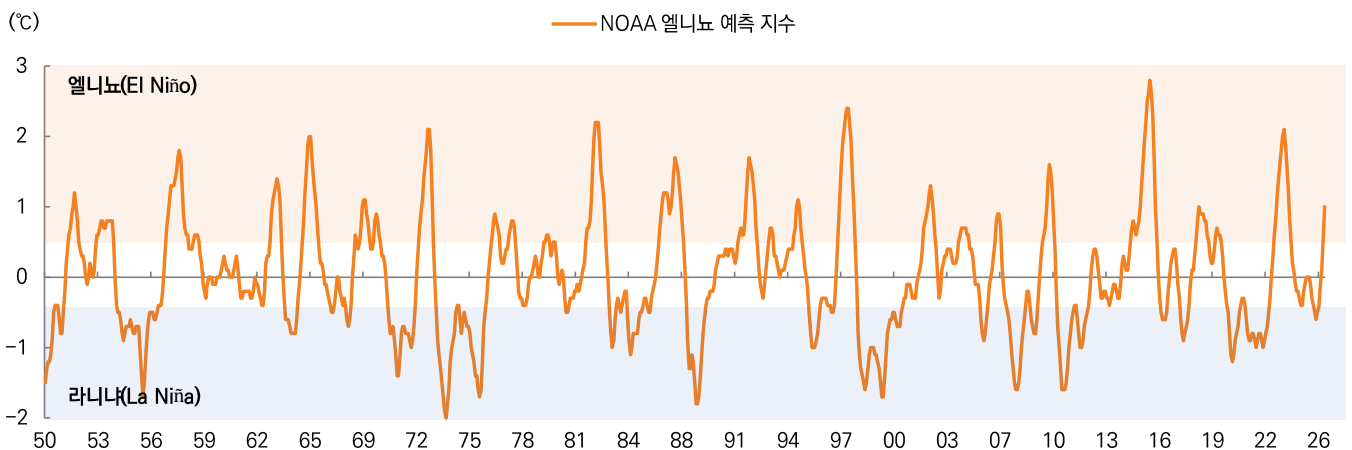
엘니뇨는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따뜻한 상태로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엘니뇨 감시 구역(중부 및 동부 열대 태평양, El Niño 3.4 지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가 평년보다 $+0.5^{\circ}\text{C}$ 이상인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가리킨다. 이는 대기와 해양의 흐름을 변화시켜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슈퍼엘니뇨(Super El Niño)
언론이나 시장 참가자들이 엘니뇨의 정점 강도를 강조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현. 기상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표현은 ‘매우 강한 엘니뇨(Very Strong El Niño)’임.

엘니뇨 현상은 불규칙한 주기성을 띠지만, 일반적으로 2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하며 한 번 발생하면 대략 9~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 엘니뇨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세계 주요 기후관측 기관들은 ‘슈퍼 엘니뇨’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슈퍼 엘니뇨(Super El Niño)는 일반적인 엘니뇨보다 훨씬 강력한 상태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0^{\circ}\text{C}$ 이상 높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달 중이며 8월부터 10월까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관측 지역(El Niño 3.4)의 계절 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는 $+2.9^{\circ}\text{C}$ 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기상센터는 2027년에는 1950년 이후 기록된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림 2.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엘니뇨 예측 지수



자료: NOAA,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엘니뇨는 대기 순환 패턴을 왜곡하여 전 지구적인 극한 기후를 초래한다. 기온 상승과 함께 대기 중 수증기량을 늘려 기습적인 폭우를 유발하는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극심한 가뭄과 열돔(Heat dome) 현상을 증폭시켜 폭염을 장기화한다.

지난 6월 서유럽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으며,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는 약 43℃ (109℉)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도 8월 2일 경남 양산의 한낮 최고 온도가 42.5℃를 기록했는데, 이는 1904년 국내 근대 기상관측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다. 또한 유럽의 핵심 물류로인 독일 라인강의 카우프(Kaub) 지점 수위가 19~25cm까지 급락하며 2018년 대가뭄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 프랑스는 2026/27 옥수수 생산량 전망을 전년보다 26% 낮췄고, 미국 겨울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엘니뇨는 단순한 기상 이변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의 공급 충격을 거쳐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 폭염과 가뭄은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켜 글로벌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라인강과 같은 주요 수로의 수위 저하는 원자재와 에너지 운송을 제약해 공급망 병목을 심화시킨다. 여기에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까지 겹치면 기업의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실제 다트머스대 연구는 1997~1998년 엘니뇨의 경제적 여파가 이후 수년간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7조달러의 GDP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멈춰 선 헝가리 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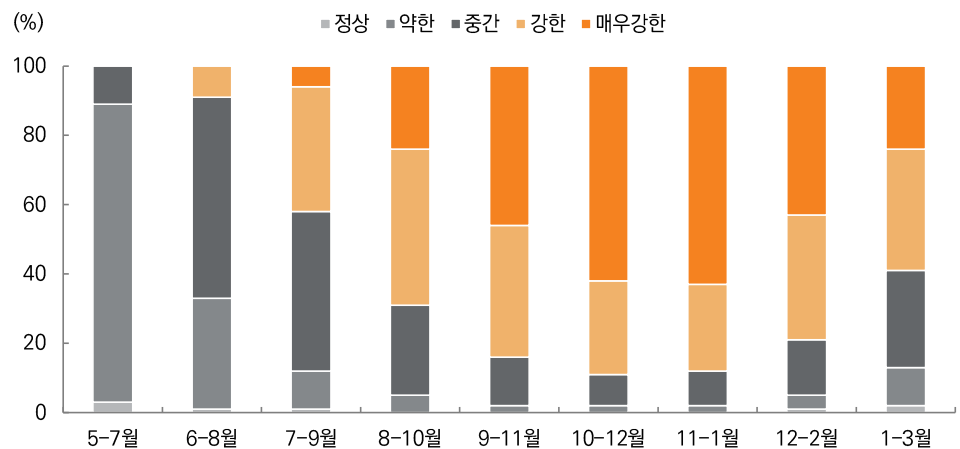
다뉴브강의 초당 유량이 3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냉각수 부족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5-10시 전기 절약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전력 절약을 장려.

표 1. 세계기상기구(WMO)의 해양 해수면 온도 변화 예측치

2026년	Nino 1+2 (동부 극단)	Nino 3 (동부 적도)	Nino 4 (서부 적도)	Nino3.4 (동중부 적도)	IOD (인도양)	NTA (북대서양)	STA (남대서양)
8월	3.4±0.9	3.1±0.5	1.5±0.4	2.7±0.2	0.4±0.2	0.4±0.2	0.3±0.2
9월	3.6±1.1	3.5±0.7	1.9±0.5	3.1±0.4	0.7±0.3	0.5±0.2	0.5±0.2
10월	3.6±1.1	3.7±0.9	2.0±0.6	3.4±0.6	0.9±0.3	0.5±0.2	0.6±0.2
8-10월	3.5±1.0	3.3±0.6	1.7±0.5	2.9±0.4	0.6±0.3	0.4±0.2	0.4±0.2

주: 전 세계 주요 예측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한 중부 및 동부 적도 태평양 지역의 다중 모델 앙상블 예측 결과
자료: WMO,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계절별 엘니뇨 발생 강도



자료: NOAA,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후 충격의 경제 전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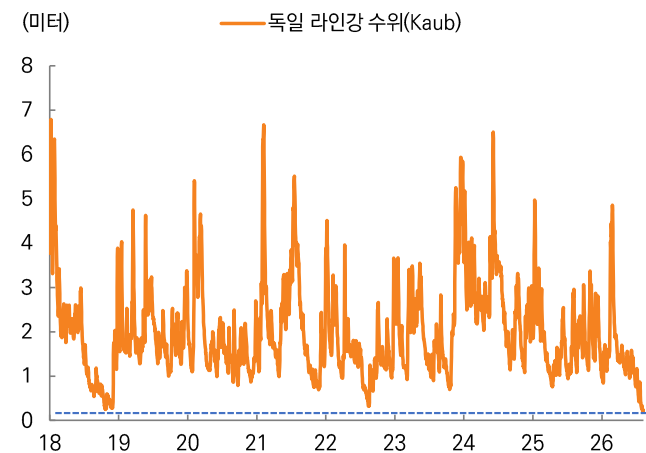
엘니뇨의 경제적 영향은 기온이 몇 도 상승했는지가 아니라, **기후 충격이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격화된다. 이번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경로는 크게 공급망, 에너지, 식량가격 세 가지다. 개별적으로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만, 동시에 발생할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진다.

첫째, 가뭄은 글로벌 공급망의 물리적 이동능력을 떨어뜨린다. 라인강과 같은 주요 내륙 수로의 수위가 낮아지면 선박은 좌초를 피하기 위해 적재량을 줄여야 한다. 같은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더 많은 선박과 운항이 필요해지면서 톤당 운송비가 상승하고, 곡물뿐 아니라 석유제품·화학제품·비료·철강 원료의 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문제는 대체 운송망도 무한하지 않다는 점이다. 철도와 트럭으로 물량이 이동하면 차량과 터미널 부족으로 또 다른 병목이 발생한다. 기후 충격이 특정 수로에서 시작돼 제조업 전반의 물류비 상승으로 확산되는 구조다.

둘째, 폭염은 에너지 시장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기온이 상승하면 냉방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지만, 가뭄은 수력 발전량을 감소시키고 발전소 냉각용수 확보에도 부담을 준다. 여기에 하천 수위 하락으로 석탄과 석유제품 운송까지 제약될 경우 전력시장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피크시간대의 전력가격 상승은 데이터센터, 화학,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된다.

셋째,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기후 인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다. 폭염과 가뭄이 작황을 훼손하면 곡물·채소·과일 가격이 우선 상승하고, 이후 사료비와 가공비를 거쳐 축산물·가공식품·외식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전이된다. 비료와 에너지, 물류비까지 동시에 상승하면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비용 압력이 커진다. 여기에 주요 생산국이 자국 식량물가를 방어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제가격은 실제 생산 감소 폭보다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림 4.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라인 강 수위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코코아 선물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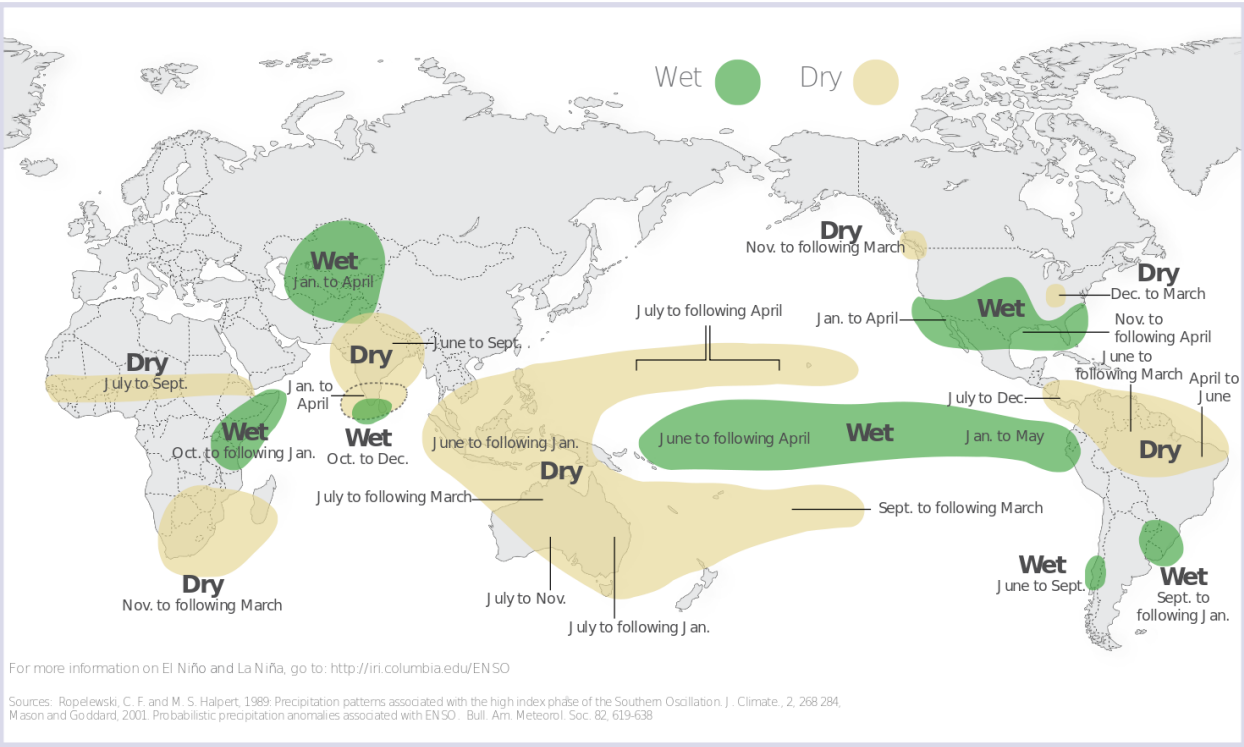
결국 기후 충격 → 생산량 감소(Q) → 원재료·운송비 상승(P) → 기업 원가 상승 → 소비
자물가 상승 → 금리 상승 기대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공급 측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더욱 부담스럽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재차
상승하면 물가 둔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해지고,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장기금
리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엘니뇨의 명목상 강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작황 전망,
주요 하천 수위, 운임, 에너지 가격, 수출 규제 등 실물지표에서 기후 충격이 실제 경제적
병목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6. 엘니뇨가 전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

El Niño and Rainfall

El Niño conditions in the tropical Pacific are known to shift rainfall patterns in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lthough they vary somewhat from one El Niño to the next, the strongest shifts remain fairly consistent in the regions and seasons shown on the map below.



자료: IRI, NOAA

Investment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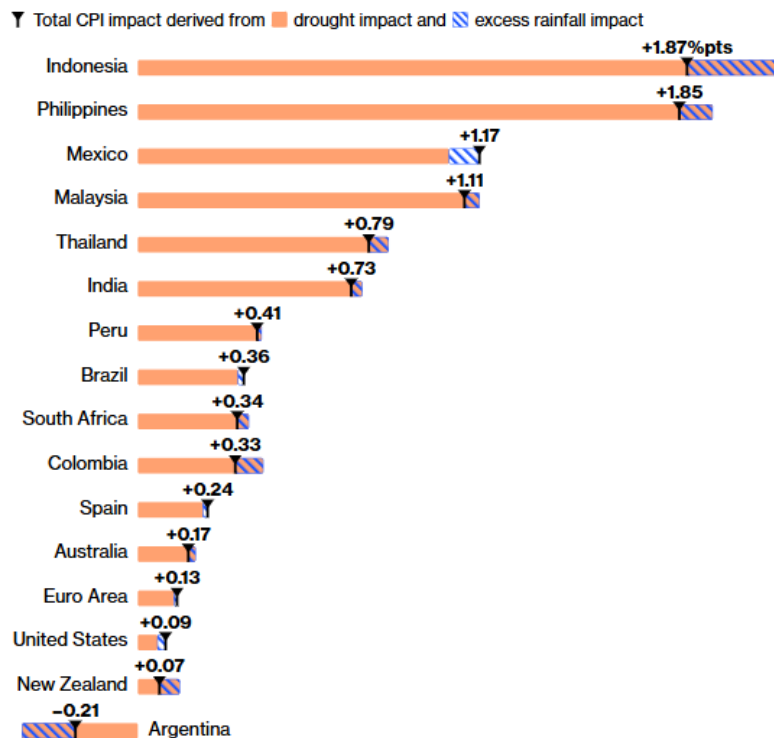
슈퍼 엘니뇨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농산물·비료·물류 관련주를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같은 기후 충격에서도 기업별 손익 영향은 크게 다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어떤 기업에는 판매가격 상승의 기회가 되지만, 다른 기업에는 마진 훼손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엘니뇨 수혜 업종'을 찾는 것보다 공급 충격을 가격과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기) 인플레이션 재가속 가능성을 경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농산물 가격이다. 기상 악화가 생산량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고 재고까지 감소한다면 곡물가격의 상승 압력은 커질 수 있다. 다만 날씨 관련 원자재는 전망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강수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거나 생산량 감소가 제한적일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되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추격매수보다는 제한적인 헤지 관점이 적절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동반 상승 여부가 중요하다. 공급 측 물가 압력이 재차 높아지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 있고, 장기금리가 반등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성장주의 할인율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내 금리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 지 점검하고,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의 상대적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7. 엘니뇨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영향 추정치



자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기) ‘가격 전가력’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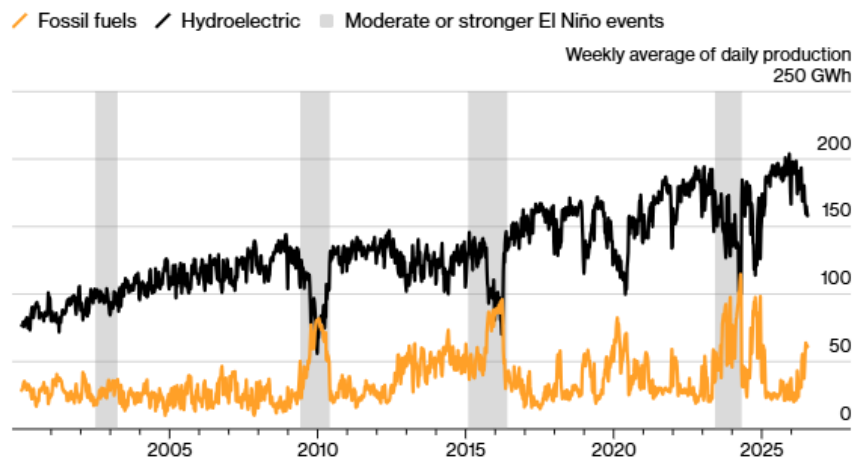
기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경쟁력은 Pricing Power다. 원가가 오르더라도 판매가격을 올려 매출총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적 차별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기업의 경우 단순히 제품가격이 상승한다고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 곡물·유지류·육류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통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충분히 전가하지 못한다면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익률은 하락한다. 반면 강한 브랜드, 높은 시장점유율, 장기 조달계약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경쟁사 대비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크다.

비료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곡물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 확대 유인을 높여 비료수요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천연가스 등 주요 원료가격이 동시에 상승한다면 생산비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단순한 비료가격 상승보다 원료 조달비용, 생산원가와 판가의 스프레드를 확인해야 한다.

물류기업 역시 운임이 상승한다고 모두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 트럭·철도·해운기업은 물동량 증가와 운임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료비와 인건비, 터미널 혼잡 비용도 동시에 상승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임 자체보다 비용 상승을 고객에게 얼마나 빠르게 전가할 수 있는가다.

그림 8. 콜롬비아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 추이



자료: XM SA ESP, 블룸버그

(장기) ‘기후 적응’ 자체가 투자 테마

엘니뇨는 주기적인 자연현상이지만, 높은 기온과 물 부족이 반복되면서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식은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뭄과 폭염이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Adaptation CapEx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영역은 물 관리와 관개 시스템이다. 농업용수 사용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관개, 누수 탐지, 수처리, 담수화 등은 가뭄이 반복될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밀농업, 토양수분 센서, 기상 데이터, 내건성 종자와 같은 기술이 생산량 변동을 낮추기 위한 필수 투자로 확대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 냉방 설비가 중요하다. 폭염으로 전력 피크가 높아질수록 발전량 자체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배전하고 저장하는 능력의 가치가 커진다. 공급망에서는 생산거점과 조달처를 분산하거나 대체 운송망을 구축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

기후 적응 투자의 장점은 특정 엘니뇨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올해 엘니뇨가 예상보다 약해지더라도 물 부족과 폭염에 대비한 설비투자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기 기상 이벤트를 예측하는 것보다 반복되는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CapEx가 증가하는 산업을 찾는 접근이 장기 투자에는 더 적합하다.

결국, Weather보다 Earnings

이번 슈퍼 엘니뇨 국면에서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① 공급 부족이 실제로 발생하는가, ② 가격이 상승하는가, ③ 기업이 이를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기상 전망만 악화되고 생산량 전망과 현물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투자 신호는 제한적이다. 반면 작황 하향과 재고 감소, 운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기업의 판가 인상이 뒤따르면 기후 충격이 실제 Earnings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단기에는 식량·에너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에 대비하고, 중기에는 가격 전가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며, 장기에는 물 관리·전력망·정밀농업 등 기후 적응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투자자가 주목 해야 할 것은 ‘더운 날씨’가 아니다. **기후 충격으로 발생한 병목에서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거나, 그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기업이다.**

표 2. 투자 시계열별 국내·외 관심 ETF 리스트

(원, \$, 십억 원, \$BN, %)

시계열	핵심 아이디어	ETF명	코드(티커)	현재가	시가총액	기간수익률			
						1주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단기	식량 가격 상승 헤지	TIGER 농산물선물Enhanced(H)	137610	5,300	12.2	0.1	1.3	-2.0	4.4
		Ivesco DB Agriculture Fund	DBA	27.43	1.2	-0.2	-0.4	-1.3	7.5
중기	전력·공급망 병목 해소	TIGER 코리아AI전력기TOP3플러스	0117V0	17780	932.7	10.1	-11.4	-45.4	45.5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장기)	PAVE	58.35	14.3	4.0	3.4	2.7	22.1
		iShares Global Infrastructure (장기)	IGF	66.04	10.7	-1.4	-1.7	-1.6	7.6
장기	기후 적응 CapEx·전력 공급 확대	TIGER 코리아원자력	0091P0	15,365	518.2	13.9	-3.4	-43.4	45.1
		TIGER Fn신재생에너지	377990	22,915	111.2	13.7	-7.3	-41.5	30.8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	404540	21,825	8.7	2.2	-11.8	-22.9	36.4

주: 음영은 미국 상장 ETF 의미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Weekly Preview

재정건전성

미 연방정부 부채가 40조 달러에 근접한 가운데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었고, 5월에는 월간 순이자비용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6 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 역시 1조 3,6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 증가했으며, 관세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까지 더해지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질 수 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2기 이후 저점인 4.0%에서 현재 4.68%까지 약 68bp 상승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플레이션 기대보다는 기간 프리미엄 확대에서 기인했다. 30년물 금리 역시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재정 우려가 장기금리의 구조적 하방 경직성을 높일 경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물가와 환율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동시 개입한 것은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조치이다. 이번 개입은 달러당 엔화 환율이 40년 만에 최저치인 164엔 부근까지 접근하는 등 엔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양국이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공조와 FIMA 레포 기구 활용이 엔화 약세 속도를 완화할 수 있으나, 미·일 금리 차와 일본의 확장 재정 등 구조적 약세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물가 우려와 재정 프리미엄이 동시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FIMA 레포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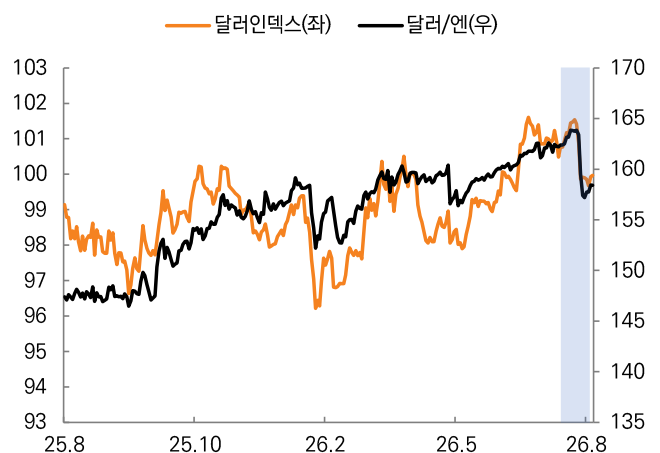
미 연준이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 통화 당국에게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달러 유동성 백스톱' 제도.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때 임시로 도입되었다가 2021년 7월 상설 제도로 전환.

그림 9. 미국 연방정부 월별 순이자지급 추이



자료: 재무부, 블룸버그미레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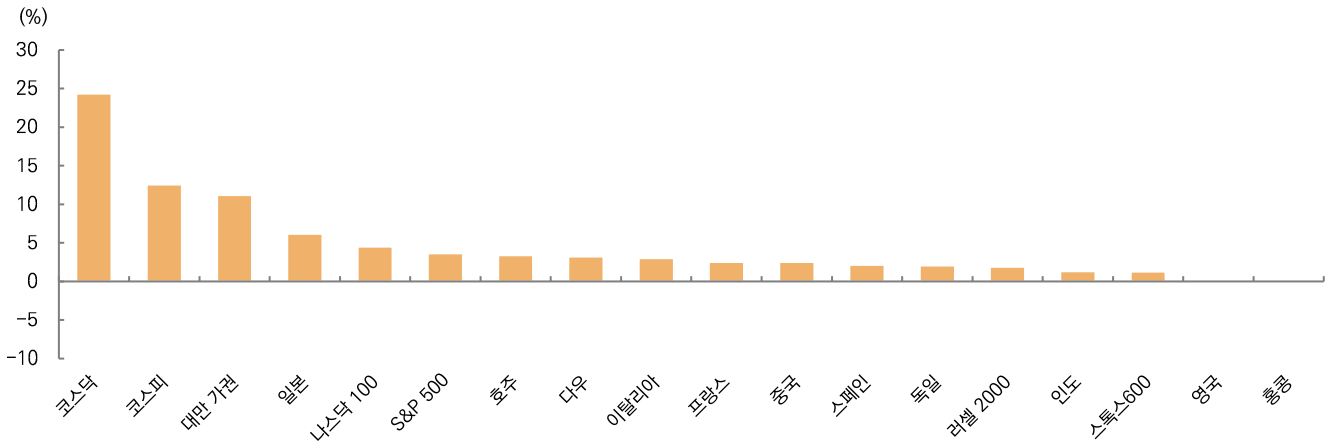
그림 10. 달러인덱스와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블룸버그, 미레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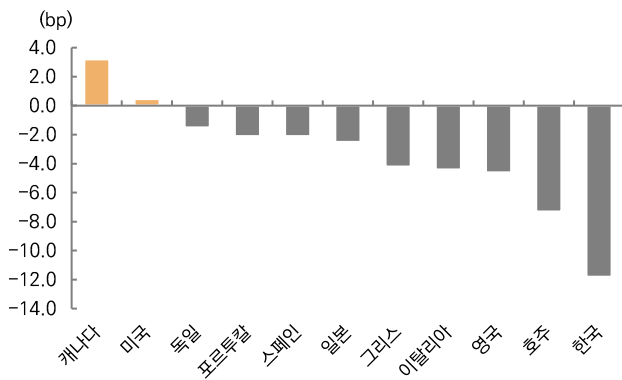
주간 글로벌 마켓 스냅샷(7.31~8.6)

그림 11. 주요국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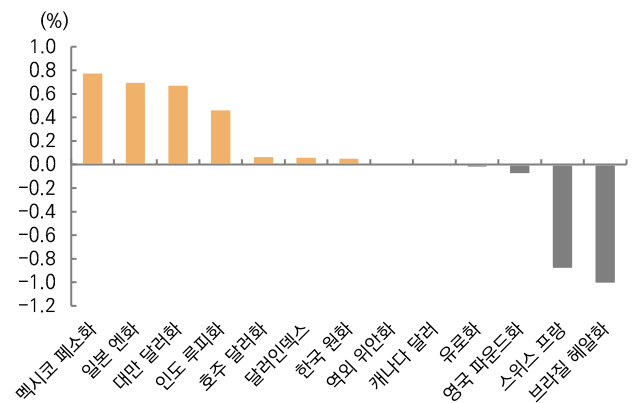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주요국 10년 국채 등락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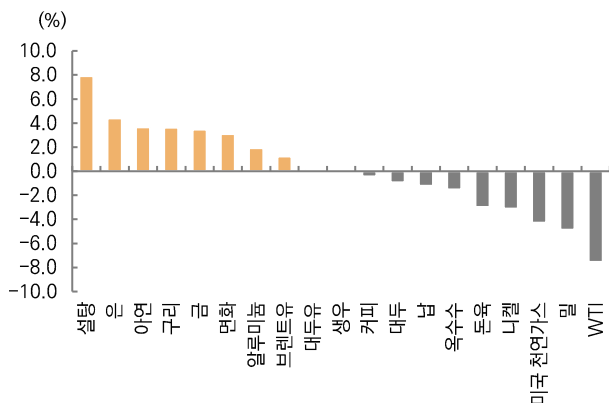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주요국 통화 가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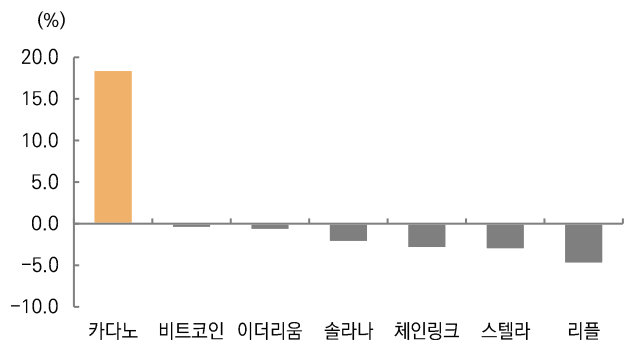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블룸버그 상품지수 품목별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나스닥 CME 암호화폐 지수 항목별 등락률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경제지표&일정

그림 16. 주간 경제지표 & 일정

	경제 지표	일정
10일 (월)	- 중국, 7월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9일) - 일본, 6월 경상수지	- 행사: 테슬라코리아 '감독형FSD' 구독제 도입 중국 유니트리 공모(150.80 위안) 청약 - 실적: 대만 TSMC 7월 매출, SK바이오사이언스, 한전KPS 버크셔해서웨이, 배릭마이닝, 로켓랩
11일 (화)	미국, 7월 기존주택판매·NFIB 소기업 낙관지수	-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 공개: 미국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 실적: 펄버비스, 신세계, GS, CJ제일제당 롤루레몬, 코어워브, 슈퍼마이크로컴퓨터
12일 (수)	- 한국, 7월 고용동향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연방재정수지	- 공개: OPEC·IEA 원유 시장 보고서 - 행사: MSCI 분기 리뷰(*반영 31일) -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 실적: 메리츠금융지주, 한국콜마, SFA, JYP Ent. 시스코시스템즈, 코히런트, 세레브라스, 네비우스
13일 (목)	- 중국, 7월 유동성(M2, 사회용자, 신규대출) 지표 - 유로존, 6월 산업생산 -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 행사: 한국 옵션만기일 -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 실적: LG,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마트, 달비글로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JD.com, 태피스트리
14일 (금)	- 한국, 7월 수출입물가지수·6월 통화 및 유동성 -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잠정) - 미국, 7월 소매판매·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잠)	- 공개: 미국 13F 공시 마감일 - 행사: 빌 게이츠 방한, 반기 보고서 마감 - 실적: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SK네트웍스

주: 현지시각 기준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